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4. 26.(금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	담 당 자	• 과장 장구중, 사무관 홍철, 주무관 이진문 • ☎ (044) 201-5082, 5084
	교통정책조정과		• 과장 강주엽, 서기관 나민희, 주무관 윤현식 • ☎ (044) 201-3804, 3792
보 도 일 시		2019년 4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8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전국 11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5월1일부터 알뜰카드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체험단 모집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는 5개 광역자치단체(부산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)와 6개 기초자치단체(경기 수원, 충북 청주, 전북 전주, 경북 포항, 영주, 경남 양산) 등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2,000명 내외, 전국적으로는 총 20,000명 이상의 체험단(도시 규모, 호응도, 대중교통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모집 예정)을 모집*하여 진행할 계획이며, 시범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응모하면 참여가 가능하다.

* 다음 달 1일(수)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(<http://alcard.kr>, 주요 포털에서 '광역알뜰교통카드' 검색)를 통해 응모 가능

□ 6월 시범사업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각 지역별 자치단체장, 체험단 및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후불 모바일 알뜰카드 및 보행 마일리지 시연행사와 체험단 발대식 등이 광화문 일대 /서울역에서 진행될 계획이다.(5월 15일, 잠정)

① 시연행사 : 도보로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이동 후 시청역에서 서울역까지 대중교통(지하철)을 이용하며 마일리지 적립 과정을 직접 체험

② 체험단 발대식 : 국토부(대광위), 지자체장, 교통안전공단, 카드사 관계자 및 체험단(지역별 10명 내외) 등 총 200여명 규모

- ③ 협약서 체결 : 국토부(대광위), 지자체, 교통안전공단, 카드사 등의 행정·재정적 지원 및 상호 협력 결의를 위한 업무협약

< 시연행사 진행 계획(안) >



□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.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최대 30%+α까지 교통비가 줄어들고, 보행·자전거 마이리지를 쌓는 재미도 쏠쏠하다.

- 지난 해 세종, 울산, 전주 등에서 시범사업을 거치며 편의성*과 혜택이 대폭 늘어나 혁신적으로 변화했다.

* 후불 교통카드(신한 우리·BC), 모바일형 선불카드(이비카드), 전국 호환 자동마이리지 적립 등

※ 2018년 울산·전주 시범사업 시 체험단 설문조사 결과

☞ 전반적인 만족도는 78.0%, 향후 정식 출시 시 재이용여부 의사 85.2%

□ 국토교통부 안석환 광역교통정책국장은 “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, 후불 교통카드 도입, 자동 적립기능 추가 등 편의성을 대폭 높였으며, 마이리지 적립액을 상향하여 혜택도 늘어날 것”이라며,

- “올해 시범사업을 꼼꼼히 준비했다. 완성형 단계에 다다른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체험단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”라고 말했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홍철 사무관(☎ 044-201-50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광역알뜰교통카드 추진계획

1 2018년 시범사업 결과(울산, 전주시)

1 1인당 월 평균 마일리지 적립액



2 1인당 대중교통비 절감효과



3 주요성과

-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도 설계·보완
- 앱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 개선 및 국민 만족도 향상

4 개선 필요사항

- 지역 이용 제한, 충전소 방문 충전, 선불 보증금 부담

2 이렇게 바뀝니다!

1 마일리지 적립과 앱 조작이 간편해집니다

- 수동(QR코드) → 자동(GPS 측정)



- 10단계 조작 → 2단계 조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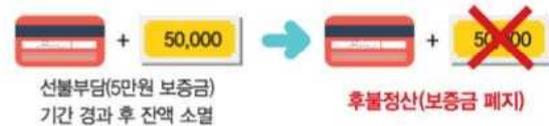
2 마일리지 보상액이 늘어납니다



3 선불카드 정기권 충전이 편리해집니다



4 후불 교통카드가 도입됩니다



5 카드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

	2018년	2019년
사용지역	도시 내 제한	전국화환
광역통합 환승할인	불가	가능
요금제	최대 3가지	무제한

6 광역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늘어납니다

- 보험사: 생명·상해·자동차 보험사 등과 추가 마일리지 지원 협의
- 지자체: 지자체별 특화 서비스 제공(차량 2부제, 건강포인트 제도)
- 기업: 추가 마일리지 제공 시, 실시간 잔액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서 공제
- 후불카드사: 자체 재원으로 추가 마일리지 지급 등 다양한 파생서비스 제공

3 2019년 시범사업 계획

-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여 수도권 등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

